

베트남 수출증과 함께 무역마찰도 점차 커질 전망

□ 수출 증가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마찰 발생

- 베트남은 미국과 2001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 힘입어 미국시장 진출이 용이해짐에 따라 의류 및 수산물의 대미수출이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음. 대미 의류수출은 2001년의 48백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24억 달러로 크게 치솟았으며 수산물의 경우는 2001년의 4.8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7.3억 달러로 늘어났음.
- 이러한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정부는 자국의 수산물 및 의류업계의 압력을 받아 수입규제에 나서게 되었음. 미국은 베트남의 수산물(주로 Catfish) 수출에 대해 작년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금년 7월에 베트남산 새우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베트남 수출업자들은 12-93%의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받았고 최종판결이 금년말에 내려질 예정임.

□ 베트남에 대한 일부 품목 쿼터적용 계속될 예정

- 섬유 및 의류는 베트남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국은 미국 및 EU 지역으로 현재는 쿼터적용에 따른 수출물량 규제를 받고 있음.
- 금년말에 다자간 섬유협정1)(Multi-Fibre Arrangement)이 종료되면서 WTO 회원국들은 더 이상 쿼터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경쟁국인 중국은 수출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됨. 그러나 WTO에 가입하지 않은 베트남은 계속 쿼터규제를 받게 되어 주요 시장인

1) 섬유와 의류에 대한 수입물량을 규제하는 세계적인 협정으로 1974년부터 실시해 옴.

미국 및 EU와 의류쿼터 연장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할 입장으로 일부 미 수입업자들이 중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향후 수입선 다변화와 WTO가입협상 진전 필요

- 베트남의 의류 및 수산물 수출의 전반적인 전망은 그렇게 비관적은 아닌 편임. 미국이 새우류에 대한 예비관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으나 이로 인한 피해는 수출선 전환을 통해 만회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반덤핑 관정을 예견해 상당수의 수출업체들이 캐나다, 호주, 일본 등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있음.
-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신규시장 개척과 무역분쟁 해결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WTO가입이 필수적인데, 현재 미국과 EU는 베트남의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 6월에 제네바에서 있었던 8차 실무협상에서 회원국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으나, 정식가입을 위해서는 아직 최소한 30개항의 관련 규정개정이 요구되고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베트남의 WTO회원국 가입이 결정될 때까지는 엄격한 쿼터 적용이나 반덤핑 관세 적용 등으로 불리한 입장이나, 이로인해 베트남정부의 WTO 가입추진 가속화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부부장 김종호(3779-6674)

E-mail: jhokim@koreaexim.go.kr

